

## 성경 상의 만나의 어원과 감추었던 만나, 이슬성신의 의미에 대한 증거

만나는 하늘에서 주신 기적의 양식이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간 광야에서 방황하고 있을 때 가지고 온 양식이 떨어져 굶어 죽기 직전의 상태가 되고 배고픔을 느낀 백성들이 모세에게 불평을 말하자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여 간구하였다.

출애굽기(16:14-31)와 민수기(11:6-9), 신명기(8:3), 느헤미야(9:20~21), 시편(78:23~24), 요한복음(6:31), 히브리서(9:2-4), 묵시록(2:17)

###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를 먹고 살다

여호와와 모세에게 "너희가 해 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라"라고 일렀다고 한다. 과연 그날 저녁 수많은 메추라기가 내려와서 야영지를 덮었고 다음 날 아침에는 이슬이 자욱히 내렸는데, 이슬이 사라지고 나니 서리같이 희고 동그란 것이 가득히 흩어져 있었다. 모세는 백성들에게 "이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니 각 사람의 식량대로 이것을 거두어라"라고 일렀다.

그리고 이것을 가리켜 '만나'라고 했다. 그 맛은 꿀 과자 같았으며 해가 뜨면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날마다 새벽에 일어나서 그것을 모았다. 또 하루가 지나면 부패해 버리는 성질이 있어 그날 필요한 양, 즉 한 사람이 1오멜(리터)을 가지고 가



▲ 만나를 거두다 (Gathering of the Manna, Antonio Tempesta, 1555-1630)

도록 허락되어 있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40년 동안을 날마다 이 만나에 의하여 목숨을 이어갔다(출애굽기 16장 13절 이하, 민수기 6장에서 9장).

지성소의 언약속 금항아리에 담긴 만나 한 오멜은 이스라엘 자손 대대로 40년간 광야에서 여호와가 먹이신 양식을 보이기 위한 것이었는데 썩지도 변하지도 않았다고 한다(히브리서 9장 2-4절).

### 만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무엇'

성경에서 말하는 만나에 대하여 주변의

이스라엘 베두인 사람들은 하늘로부터의 만나(만 에스 사마라)라고 부른다. 이것은 고대 이집트어로써 식량을 의미하는 '만누' 또는 같은 의미의 아랍어 '만'에서 온 것으로 보는 것이 설득력이 있다고 본다. 즉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무엇'이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 그것은 바로 상징적인 의미로서 하늘의 양식, 신들이 먹는 하늘의 음식이라고 그 어원을 의미 지을 수 있을 것이다.

모세 시대의 이러한 만나를 내리게 했던 하늘의 뜻은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들은 한 번쯤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유대

인들은 참 메시아 시대에 만나의 기적이 재현될 것이라는 소신을 피력하고 있다. (요한복음 6:31 이하)

### 모세 때에 내린 만나는 육적 양식이며, 참 메시아가 내리는 만나는 영생을 주는 영적인 만나

기독교인들은 예수를 그러한 메시아에 대응시키고 있지만 성경의 예언에 전혀 부합되지 않는 인물이며 비성경적인 발상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고난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모세의 예언과 같이 두 번째 구속자가 되는 참 메시아는 모세와 동일한 행위를 하여야만 하는 것이다. 즉 지금도 사망 권세에 죽어가고 있는 만민들을 다시 살릴 수 있는 감추었던 만나, 이슬성령의 은혜로써 구원의 역사를 하는 자라야 참 구세주요, 참 메시아인 것이다.

모세 시대의 만나를 자연적이고 세상의 육적 양식이라고 한다면 참 메시아가 내리게 되는 성경 상의 감추었던 만나, 즉 참 인간자 구세주의 이슬성령은 마음의 양식이며 성령의 빛으로 임하는 영적인 만나가 되는 것이다. 고통과 괴롭힘 속에서 죽어가는 모든 생명들을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고 살아서 기쁨과 영생의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하늘의 만나가 참된 성경 상의 이슬성신인 것이다.\*

## 금주의 말씀 요절

전 세계를 향하여 선포한다 <280>

### "이 세상 사람들 속의 마귀도 같이 죽는다"

영생의 역사를 다른 인간의 역사처럼 한 사람 한 사람 전도하여 이 세상을 구원한다면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다. 이 제단에 매일 출석하는 여러분들 속에 있는 마귀는 이 세상 사람들 속에 있는 마귀와 같은 마귀이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속에 있는 마귀만 죽어버리면 이 세상 사람들 속에 있는 마귀도 같이 죽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이는 책을 하고, 고집을 부리고, 나라를 주체의식을 죽이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자존심 속에서 살면,

자기 속의 마귀만 안 죽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 사람들의 마귀도 안 죽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속에 있는 마귀를 죽임으로써 이 세상 사람들의 마귀도 따라서 죽게 되어 있는 것이다.\*

### 이기는 삶

## 한글을 이해하려면 한자를 알아야 한다

요즘 세대는 영어와는 가깝고 한자와는 거리가 멀다. 영어는 잘하는데 한자는 쳐다만 봐도 머리가 아프다. 그것은 일제 강점기 이후 급속도로 미국의 물질문명이 대한민국의 문화를 지배해 버렸기 때문이다. 영어를 잘해야 출세를 보장받을 수 있으므로 대학 입시에도 영어가 필수과목이며 입사 시험에도 영어 토익점수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에 한자(漢字)는 중국의 글이라는 생각과 한글이던 다 표현이 되는데 굳이 골치 아픈 한자를 공부해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말의 70%가 한자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간과(看過)하면 안 된다. 우리의 말 속에는 한자로 된 단어와 사자성어(四子聖語)가 대부분이며 교과서를 비롯한 각종 서적에도 실려있다.

한자의 뜻을 알아야 우리 말과 글의 깊이를 제대로 알 수가 있다. 한자는 우리의 인성교육에도 도움이 된다. 한자 속에는 과학, 철학, 윤리 등이 모두 실려있으므로 지적, 인성교육에 더없이 좋다.

우리는 흔히 마스크에서 유명인이 실수를 저지르고는 "여러분들에게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려를 끼쳐 대단히 죄송합니다"라고 하는 말을 종종 들을 수 있다. 그런데 '심심한 사과'라는 말에 대하여 한자가 '심심(甚深)한 사과'라는 뜻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심심(甚深)한 사과'라는 말은 '매우 깊고 간절하게 마음을 표현하여야 하는 뜻이다.'

우리 민족이 한자를 쓰기 시작한 것은 고조선 시대부터이다. 이후 삼

국 시대, 고려시대, 심지어 한글이 창제된 조선시대에도 한자를 계속 사용했다. 그러므로 우리 선조들이 남긴 역사의 기록은 대부분 한자로 되어 있다. 그러므로 우리 민족의 정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자를 알아야 한다. 한자의 깊이를 알려면 우리말을 알아야 그 뜻을 제대로 알 수가 있다. 왜냐하면 한자는 동이족이 만든 글자이며 동이족은 바로 한민족의 뿌리이기 때문이다.

삼국 시대부터 이어온 불교의 최고 경전인 팔만대장경 또한 모두 한자로 되어 있다.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보다 더 정확하다는 우리 민족의 대예언서(豫言書)인 격암유록(格菴遺錄) 또한 한자로 되어 있다. 조선시대 유교의 근간(根幹)인 사서삼경(四書三經)도 한자로 되어 있다. 민족종교인 한일교, 증산도, 대순진리회의 경전도 모두 한자로 되어 있다.

우리 선조들의 역사와 사상(思想)을 이해하기 위해서도 한자를 알아야만 한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우리말의 70%가 한자다. 한자를 모르고는 우리 말을 이해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다. 온고지신(溫故知新) 즉 옛것을 익히고 미루어 새것을 안다고 하였다.

한자를 배운 학생들의 지능이 더 높다고 한다. 한자는 어휘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 그러므로 한자 공부를 하면 국어 능력이 향상된다. 한국어의 고급 어휘는 모두 한자어로 이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번역기가 한글로 된 사자성어를 자연스럽게 번역하고 있다. 그러므로 한글을 제대로 알려면 한자 공부를 꼭 해야 한다는 말이다.\*

## 2030년 내에 무한생명연장이 가능해

"미래 사회에서 노화는 자연 현상이 아니라 하나의 질병에 불과할 것이며 현재 생존해 있는 사람 중에도 1000세의 수명을 누릴 사람이 60명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2004년 12월 3일, 영국 캠브리지 대학의 교수 오브리드 그레이(Aubrey De Grey) 박사는 영국 BBC 방송과의 회견을 통해 위와 같이 사람이 1000살까지 살게 될 날이 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것은 결코 허황된 꿈이 아닙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손상된 세포와 분자의 치유를 목적으로 하는 (SENS(Strategies for Engineered negligible Senescence) 프로젝트)와 기존의 의료 기술이 합쳐져 반드시 실현될 것입니다. 이미 각 부분별 임상 실험이 진행되고 있으며 쥐를 통한 종합적인 임상 실험은 향후 10년, 그리고 인체

실험은 추가로 10년이 더 소요될 것인데 만약 이 실험이 성공하게 되면 인류는 노화의 공포에서 벗어나 나이가 들어도 젊음과 건강을 유지하게 될 것입니다."

장수나 웰빙의 개념과는 달리 그레이 교수를 비롯한 몇몇 학자들은 만약 우리가 좀 더 오래 살면 과학 지식이 현재의 비율로 팽창할 경우 25년 내에 무한 생명 연장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과연 어떻게 25년 내에 노화와 질병을 정복하여 영생을 이루겠다는 것일까? 그는 (타임즈(Times)와의 인터뷰에서 앞으로 맞이하게 될 영생을 위해 현재 그가 진행하고 있는 (SENS 프로젝트)에 근거한 노년기의 7가지 전략을 제시했다.

"먼저 알츠하이머나 파킨슨병으로 인해 사라진 세포를 대체시킨 다음 앞으로 증가한 세포의 성장을 중지시키고, 염색체와 미토콘드리아세포의 에너지 공장) 내의

돌연변이를 방지합니다. 그리고 세포 안팎의 노폐물을 제거하며 마지막으로 동맥경화를 일으키는 세포 밖의 단백질 결합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위의 사실들을 한꺼번에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현재는 그것에 따른 실험을 진행 중입니다"

요컨대, 현재 불사에 대한 연구는 이미 상당히 노련화된 선진국을 중심으로 점점 가속화되고 있다.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거대한 흐름이 되어버린 영생의 물결. 그 거센 파도 위에서 그레이 박사는 이렇게 말한다.

"아직도 일부에서는 불사(不死)의 추구가 심각하게 비이성적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들의 말처럼 불사란 이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보다 더 이상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점차 우스꽝스러운 죽음을 숙명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이 아닌 현명한 불사(不死)인들이 될 것입니다.\*"

## 신이 아닌 이상 이렇게 완벽하고 조리 있는 설교를 할 수 없어



▲ 승리회보 제94호 1면 헤드라인 캡처

1987년 9월 5일 제4차 세계 전도 순방길에 오르신 이진자 조희성님은 첫 도착지 미국 뉴욕에서 한 달 동안 체류하셨다. 그 당시 미국 뉴욕방송국 KKC(The Korean Channel)에서 조희성님은 "성경은 사람 몸이 죽지 않는 비결을 논했다"라는 제목으로 2시간 분량에 해당하는 방송녹화를 성공리에 마쳤고, 2시간에 해당하는 방송녹

화분량을 30분씩 4회로 편성하여 1차로 1987년 9월 27일에 TV방영되었고 2차는 10월 4일에 방영되었고 3차는 10월 11일, 4차는 10월 18일에 연재로 방영되었다.

당시 방송국에서 있었던 이진자와 관련된 에피소드를 소개한다. [말씀] 여러분들이 이 사람처럼 하나님의 신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의 신이 인도하는 대로 움직이게 되어있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항상 이 사람은 이제그대로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염려하면서 살아본 예가 없습니다. 단상에 서면 무슨 말을 할까 이런 말을 할까 저런 말을 할까 염려하면서 단에 서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항상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의 신이 이 사람 입에 말씀을 담아서 말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설교는 하지만 설교한 다음에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나는 모릅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 《관련 설교를 5면, 6면, 7면, 8면 전격 게재》

- TV방영 총4회 중 2회분 영문번역 -

에 가서 미국 뉴욕방송국에 가서 방송할 때, 우리 교포들이 하는 방송국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방송국에 가서 방송하려고 하는데, 이제 설교를 쓴 기록을 가져오셨습니까? 물어봐요. 그래서 이 사람이 결결 웃으면서 "나는 그러한 설교 대본을 보고 설교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냥 단에서 말하기 시작하면 말이 한 시간을 말하려고 하면 한 시간을 말하게 되어있고 두 시간을 말하려고 하면 두 시간을 말하게 되어있고 세 시간을 말하려고 하면 세 시간을 말하고 다섯 시간 말하려고 하면 다섯 시간도 말합니다." 하니까, 그 사람들이 하품을 하면서 깜짝 놀래요. "유명한 이제 통일교 목사 문선명님도 설교 대본을 써가지고 와서 방송을 했고 또 조영기 목사도 역시 설교 대본을 가지고 와서 그 설교 대본을 읽는 그러한 설교를 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된 것이지?" 나더러 목사라고 합니다. (2003. 6. 9)\*

- TV방영 총4회 중 첫회분 영문번역 -

https://www.victor.or.kr/sub501에서 승리신문 <제 895호>를 클릭하세요. \*\*\*

### 정도령 5대 공약

1. 세계 공산주의를 없애버리겠다.
2. 우리나라로 태풍이 못 불어오게 하겠다.
3. 여름 장마를 못 지게 하겠다.
4. 우리나라에 풍년 들게 하겠다.
5. 남북전쟁 못 일어나게 하겠다.